

전남농기원, 곤충 활용 식품소재 산업화 속도

AI 생산기술 등 국비 연구과제 3건 선정
공정 단순화로 곤충 단백질산업 경쟁력 ↑
미래 식품소재 지역 농가 소득 창출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곤충 식품소재 산업화를 본격화하며 농가 소득 향상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9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국비 연구과제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과제는 ▲AI 기반 곤충 생산기술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대체식품 산업화다. 곤충 자원의 식품소재 활용 가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촌진흥청의 ‘AI 기반 곤충 자원 맞춤형 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 과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9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역 부산물을 활용한 곤충 맞춤형 에코피드 생산 시스템 구축과 AI 기반 생산관리 기술 도입을 통해 곤충 사육의 자동화·표준화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기능성 식품소재의 대량생산을 위한 저단계 정제 기반 소재화 기술개발’ 과제는 총 15억원 규모로 3년9개월간 진행된다.

단백질 원료의 저단계 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소재와 제형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 단순화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고 곤충 단백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혁신지원단이 지원하는 ‘압출성형 공정을 활용한 고수분·저수분 제품 생산 및 대체식품 개발 지원’ 과제는 2026년 1년간 총 5천2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갈색거저리 분말을 활용한 식물성 조직화 단백질(TVP) 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식품에 적용해 대체식품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전남농업기술원은 단순 사육 자원이었던 곤충을 고부가가치 식품소재로 전환하고 생산·가공·제품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곤충 단백질은 지속가능성과 영양학적 가치 측면에서 미래 식품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조지우 곤충잡업연구소장은 “이번 국비 과제 선정은 곤충 자원의 식품소재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기”라며 “생산기술 고도화와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지난 28일 담양농협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농협전남검사국 제공〉

농협전남검사국, 중대재해 없는 안심환경 조성 앞장

담양농협 현장 방문...의무사항 이행 확인
안전문화 정착·무사고·무재해 사업소 목표

농협전남검사국이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29일 “전남 담양농협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인과 임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협 경제사업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전남검사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 감독자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같은 마음가짐으로 함께 협심하며, 주변에 관심 갖기’라는 ‘3C’ 정신을 바탕으로

로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를 통해 단순 점검을 넘어 안전문화 정착과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지형 농협전남검사국장은 “중대재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는 물론 농협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까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기자

내달 15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도, 허위표시·수입육 둔갑판매 등 점검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5월15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특별 단속은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 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평동농협,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제공

총 59개 농가에 전액 무상 지원

광주 평동농협은 29일 “최근 평동농협 본점 자재센터 앞에서 2026년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 친환경 벼 재배 농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이번 전달식은 생산보조금 감소와 영농 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친환경 벼 재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동농협은 이날 총 59개의 농가에 1천300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했다.

특히 농협 임직원들은 비료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한 현장 곳곳을 찾아 직접 비료를 나르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현재 평동농협은 올해 무농약 인증 면적을 93ha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쌀은 농협 통합RPC를 통해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지역 친환경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삼규 조합장은 “지자체 보조금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